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과학문화

정 용 환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기술개발단 단장

벽돌 한 장은 그 자체로 큰 힘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한 장의 벽돌이 모이고 쌓여 따뜻한 집도 만들고 거대한 성도 지을 수 있다. 벽돌이 힘을 갖게 하는 것은 그것의 용도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는 조성된 지 43년이 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 연구하고 생활하는 과학도시이다. 여기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과정에서 주효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누구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국민의 성원을 얻어왔기에 대덕의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해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동안 대덕의 구성원들이 국가의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덕연구단지는 자발적인 과학도시라기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과학기술 정책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이고, 여기서 일하는 많은 과학자들도 지역 출신보다는 다른 도시에서 태어나고 공부한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 항상 지역사회와 어울리거나 융합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가 발전하여 지리적으로 경계가 없어지고 대덕의 구성원들도 대전의 전 지역에 걸쳐서 생활하다 보니 이런 고립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와 융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덕에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사단법인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한 바 있다.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은 대덕특구 구성원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과학문화 조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는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 과학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자는 취지를 갖고 시작됐다.

벽돌 한 장만으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지만 벽돌이 하나씩 모아져서 수만 장, 수십만 장 쌓인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큰 건축물도 완성할 수 있고, 무엇인가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벽돌 한 장 공동체는 가진 자의 힘으로 한 번에 무엇인가를 이루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참여로 큰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름부터 색다른 의미를 갖는다.

벽돌 한 장 공동체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과학 대중화 활동의 일환으로 '따뜻한 과학마을 이야기' 강연 프로그램을 매달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데, 주제는 과학·기술·문화·예술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강사는 모두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매달 대전 대덕구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 기업인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과학과 지역사회가 융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학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활동,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연계한 X-STEM 강연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학문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따뜻한 과학마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과학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건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했는데 이제는 뜻을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점차 가정주부·기업인·교사·교수·언론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들이 따뜻한 과학마을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고 대전을 넘어 전국적인 자발적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을 수행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변해 자기 시간의 일정 부분, 자기 재능의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에 돌려주기 위한 활동,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 주기 위한 활동, 그리고 따뜻한 과학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에 무엇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과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을 내놓아서 따뜻한 마을을 만들려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이 보유한 작은 벽돌 한 장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한 장씩 내놓음으로써 벽돌은 한 장씩 한 장씩 쌓아지고,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인가 큰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스스로 참여하는 작은 벽돌 한 장으로 우리 마을은 점차 따뜻한 과학마을로 변해 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종교칼럼

행복의 유일한 열쇠는 무엇인가?

장 형 규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사무국장

옆집에 이사가 왔는지 짐을 정리하는 부산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순간 정전이 되어 깜깜해지고 급히 초를 찾으러 서랍을 뒤지고 있는데 이사 온 옆집 아이가 문을 두드리더니 "아주머니 혹시 양초 있으세요?"라고 묻습니다. 순간 아주머니는 '이사 온 첫날부터 물건을 빌리러 오다니. 지금 빌려주면 사사건건 빌려달라고 할 게 틀림없어'라고 생각하고는 "아니 우리도 양초가 없단다 얘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방긋 웃으며 아주머니를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아요. 그래서 제가 양초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이걸로 켜세요"하며 뒤춤에서 양초 두 개를 꺼내주고 갔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어린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생각과 깨달음이 머릿속에서 스쳐갔을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웃끼리 왕래하며 살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이웃과 함께 화합하고 왕래하며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실제 행동으로 나오지 못해도 마음속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욕구가 있는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웃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천만매린'(千萬買隣)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남조 역사서인 남사 여승진에 나오는 말입니다. 송계아라는 고위관리가 퇴직 후 살 집을 살펴보다 천백만금을 주고 여승진이라는 사람의 집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백만금 밖에 안 되는 집을 천백만금에 샀다는 말에 여승진이 그 이유를 묻자 송계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백만금은 집값을 지불했고, 천만금은 당신과 이웃이 되기 위해 지불한 값이네." 고로 이 말은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뜻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웃과 화목하고 화합하며 지내는 이유는 결국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안정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해 수백만년 인류가 내려오면서 이웃과 잘 지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덕목으로 내려온 셈이지요.

작년 12월 광주 개신교·불교·가톨릭·원불교·유교 종단대표모임인 광주종교인평화회의(KCRP)에서 최순실사건이 한창일 무렵 평화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 종단 합창단들이 함께 모여 종교인평화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신앙처가 다르고 의식이 다르지만 각 종단의 의식에 따라 신도들이 함께 마음 모으며 오직 평화를 위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경건하고 축복이 넘치는 음악회였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다른 종교인들을 타종교인이라는 말로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이웃종교라고 서로 호칭을 합니다. 서로간의 신앙의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 평화를 바라는 종교인들의 마음은 하나이고 목적하는 바도 하나이기에 남남이 아닌 이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의 행복과 관련된 것이라면, 바꾸어 말해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은 겸손함과 화합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적인 형태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드러난 작금의 시대상황을 비유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 때 이웃과 웃을 수 있었고,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 때 가장 마음이 행복한 상태였고,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 때 내 가정이 행복한 순간이 되어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는 있었겠지만 그 대강을 줄기잡아 말하자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의 삶은 자신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열쇠입니다.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시국현안을 보며 안타까움과 참회의 마음이 교차합니다. 국가가 행복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가진 자들이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행복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졌다하는 것은 단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경험·정보·기술·교육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누구나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있게 마련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나눔을 실천해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아날로그 자물쇠의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양초를 건네준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기 고

자기주도적 성장 나침반 '신문읽기'

조 미 옥
영암 신북중학교 수석교사

5살 영·유아가 영어 테스트를 받고 6살 아이가 중국어까지 배우며 7살 아이가 영재고 진학을 준비해야하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학습'인가 '학대'인가를 물어야 하는 현실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실시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자주적인 사람'과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올해 3월 초등학교1·2학년부터 시작해 내년 중·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목표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 바른 인성을 갖추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배우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인문, 사회, 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게 됩니다. 이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선 조기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즐거우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필수라고 봅니다.

그러한 환경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활자로 된 신문 읽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신문읽기가 뭐 그리 중요하냐구요? 시대가 변해도 고전의 가치가 여전하듯 정보매체가 다양하게 변해도 신문의 가치 또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일반화됐습니다. 신문을 읽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어릴 적 저의 아버지는 하루 일과 중 가장 먼저 신문 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봐왔던 탓에 자연스레 신문을 접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아하는 사진과 머리기사를 보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점차 기사도 읽게 됐고, 더 알고 싶으면 질문을 통해 물어보며 신문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듯 저도 자식들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신문 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어단어를 외우고 수학문제를 풀도록 강요하는 대신, 부모인 제가 먼저 신문 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러운 신문읽기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 강합니다. 영상매체는 쉽고 입체적이어서 매력적이지만 순간적인 기억이라는 한계가 있는 반면, 활자매체인 신문은 입체적이지 못하지만 생각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만 한다면, 창의력은 저절로 커질 수 있고 정보를 활용해 아이디어가 풍부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신문 읽기로 덕을 봤다는 방송인 김제동이나 김용택 시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워렌버핏이 투자자들에게 "세상을 읽으라"고 역설하자 한 소년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읽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신문을 읽으라"고 말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신문을 읽어내는 힘을 가진다면 책 읽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해 자세히 읽다 보면 몰입하게 되고,읽는 재미를 느끼고 스스로 찾아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읽는 것을 좋아하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교육을 보면 현재처럼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과정입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맡고 있는 사회교과는 실제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외우는 '암기과목'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과여야 하기 때문에 신문을 활용해 사회현상들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질문·토론하는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적 초유의 최순실 사태가 제기되었을 때 중학생들이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 등 법률용어에 관심을 가지며 스스로 찾아 궁금증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했습니다. '어려운 국가 상황에서 중학생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신문기사를 찾아 토론하면서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닌 비판할 수 있는 합리적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신문읽기가 아니라 신문읽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가려낼 줄 아는 판단력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갖추어야 할 뉴스 리터러시 역량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가정에서 만들어주고 학교에서 다듬어 줄 수 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면 가정과 국가도 건실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선생님들이여 지금 당장 신문을 펼쳐보세요.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품을 것입니다.

社 說

벌컨포 탄피, 헬기 기총소사 규명 단서 되나

5·18 당시 계엄군이 사격한 이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벌컨포 탄피 3점이 처음으로 발견돼 오월 진실 규명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5·18기념재단은 어제 "한 시민으로부터 길이 103㎜, 직경 30㎜의 탄피 3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증자는 해당 탄피를 1980년 5월 24~25일께 광주-남평 간 도로 한두재 인근에서 습득했다고 했다. 한두재는 5·18 당시 계엄군 작전지역이다. 기증자는 최근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둘러싼 진실규명 요구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공개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가 계엄군 상부로부터 벌컨포 사격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광주일보 1월 19일자 6면)은 이미 알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재단은 이 탄피가 군 헬기에 장착한 M61벌컨포 총격 후 땅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제원과 사용 총기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탄피가 M61 벌컨포용으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 감춰져 있던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 건(smoking gun·범죄의 결정적 단서)이 될 것으로 보인다. M61벌컨포는 주로 항공기(헬기)에 탑재돼 분당 수천 발씩 발사가 가능한 중화기이기 때문이다.

벌컨포 탄피는 또한 군이 그동안 주장해 온 '자위권 발동'이 허구였음을 반박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故) 조비오 신부 등 광주 시민들은 5·18 직후부터 "계엄군 헬기가 광주 금남로 등 상공에서 사격했다"고 수차례 증언했지만 군 당국은 "증거가 없다"며 부인해 왔다. 이번에 벌컨포 탄피 발견을 단초로 5·18 증언과 증거들이 속속 제시돼 은폐된 5·18역사를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발포 명령자까지 색출하는 실마리가 됐으면 한다.

아직도 새마을회에 수십억 지원한다니

본보가 몇 차례에 걸쳐 집중 취재 보도를 했지만 광주·전남 지역 새마을회에 매년 예산 30억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아직도 유신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다. 특히 새마을회 지원 예산의 70% 이상이 회원 자녀 장학금, 조직 운영비, 자체 활동비 등에 쓰이고 있다니 특혜 시비와 함께 예산 지원의 적절성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광주일보가 전남도와 22개 시군 및 광주시 그리고 5개 자치구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올해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회에 편성한 예산은 총 34억28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회 조직 운영비 12억2100만 원, 회원자녀 장학금 6억5000만 원, 회원교육비 2억4100만 원, 새마을회 사업비(독서사업·김장나누기·집 고쳐주기) 8억9100만 원가량이다.

새마을회가 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배경은 회원 규모와 조직력이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는 표를 의식해 길게는 30여 년간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새마을회에 기계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지원은 지역 자치단체가 '복지예산 증가로 공무원 인건비 줄 예산도 없다'고 호소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적절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조차도 그동안 시정은커녕 비판조차 꺼려온 것이 사실이다. 새마을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조례)가 없지 않은데다 새마을회와 맞서다가는 표 떨어지는 것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 시민사회 여론 수렴을 통해 예산 지원 규모의 적절성 등 새마을회 전반에 관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 지금은 유신 독재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無 等 鼓

다문화 갈등

언제 어디에서나, 한 시대의 종말 그리고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이 등장하곤 한다. 그리고 그 징조는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20대 청년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사정권이 막바지 발악을 하고 민주화 투쟁이 정점을 이뤘던 지난 1980년대,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선 미국의 석학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1962)'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1980)', 미래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역사의 종언(1989)'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발표된 시기는 서로 다르지만 이들 책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시대의 필요성에 부응한 '시대정신'(Zeitgeist)을 담고 있었던 셈이다.

후쿠야마 교수가 쓴 '역사의 종언'은 특히 냉전(冷戰)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 경쟁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경쟁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각각 끝이 났다"고 선언함으로써 1980년대 군사정권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던 당시 대학생들에게 많은 영감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결국 인류의 궁극적인 사회체제이자 최후의 이데올로기로 정착했다"며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던 후쿠야마가 최근 자신의 오판을 시인, 충격을 주고 있다.

후쿠야마는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들 내부에 해소할 수 없는 긴장이 형성됐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끝으로 인류의 이데올로기 진화가 마무리됐다는 주장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계화가 이민·다문화에 대한 불만과 결합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보낼 정도의 '선동적 대중 영합주의'가 자리 잡을 공간이 생겼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2세들이 벌써 어엿한 20세 청년으로 성장,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유럽처럼 갈등이 극심하진 않지만, 일자리가 줄고 내부 경쟁이 격화되면 '다문화 갈등'은 언제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사회체제 변화와 이데올로기의 진화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갈등과 마찰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 과제일 뿐이다.

/홍행기 사회1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